

들음단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 하에 우리나라의 종교현황에 관한 통계자료가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하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참조할 수 있거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지표 몇몇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47,041천명) 대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종교인, 24,971천명)은 53%에 이르고 있습니다(단자리에서 사사오입). 길을 막고 물어보면 2명 중에 1사람은 종교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교인들 중에(53%→100%) 개신교가 점하고 있는 비율은 약 35%에 이르고 있습니다(불교의 경우 43%, 가톨릭의 경우 21%).

그렇지만 비종교인과 종교인을 모두 합친 전체 인구(47,041천명) 중에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에 이릅니다(불교의 경우 23%, 가톨릭의 경우 11%). 개략적으로 종교인 3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이고, 전체인구 중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이 되는 셈입니다(2005년 통계청 자료).

그런데 이상은 단순지표에 불과하고, 추이를 지켜보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곧 1995년에서 2005년 10년 사이에 변화된 주요 종교(불

교, 개신교, 가톨릭)의 추이로서, 증감된 신도 수는 불교의 경우 41만 명, 가톨릭의 경우에는 무려 22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는 약 15만 명이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985년에서 1995년 10년 사이 개신교의 신도 수는 약 23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추계가 그대로 2005년까지 이어졌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증가하여야 했을 230만 명과 떨어져 나간 15만 명을 합쳐 개신교는 못 잡아도 240만 명 이상이 감소한 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수치는 필자가 살고 있는 대구시의 전체인구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한편 또 다른 수치는 우리에게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10년이 아니라 최근 3년의(2008년→2011년) 통계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불교 사찰 수는 4,856개(21,935→26,791), 가톨릭 성당 수는 220만의 신도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98개가(1,511→1,609)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는 교인 수가 현격하게 감소한 형편에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 수는 무려 19,354개가(58,612→77,9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또 다른 수치는 우리에게 충격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 성직자 수는 불교의 경우 되려 2,503명이 감소하였고, 가톨릭의 경우(220만의 신도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1,321명이 소폭 상승하였음에 반하여, 개신교의 경우(15만의 신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에는 놀랍게도 44,887명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 개신교의 총 신도 수는 8,616,438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수치를 그대로 2011년에 끌어다 놓으면 교회 1곳 당 신도 수는 약 111명이 되는 셈입니다. 동일한 시각에서 보면 불교의 경우에는(10,726,463명) 400명, 가톨릭의 경우에는(5,146,147명) 약 3,200명에 달합니다. 이하 불교와 가톨릭은 논의의 대상으로 두고, 위에서의 통계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덧붙여 이러한 실상의 원인과 배경 등에 관하여 찬찬히 한 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상 목사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3년 코스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별 교단에서 정하고 있는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정규코스가 아닌 각 교단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예하에 두고 있는 소위 신학원으로 가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하게 추천되고 있는 코스는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3년 코스를 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목사고시와 일정한 사역활동에 따른 교단 저마다의 의무기간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경우 정규교과과정은 실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4개의 분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보면, 정서신학(주석 및 역사적 비판연구), 역사신학(교회사 및 교리사), 조직신학(교의학 및 윤리학), 그리고 실천신학(예배학, 설교학, 교회교육학, 사목학) 등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신학과 교회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프레드릭 쉘라이에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김광식, 조직신학(I), 대한기독교서회, 1988, 12-13면].

“신학의 본질은 교회와의 관련에서만 바르게 규정할 수 있다.”

“곧 신학지망생이 목회에 뜻이 없다면 교회적 실천과 상관없이 학문만을 위한 신학 혹은 신학을 위한 신학만을 꿈꾼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은 꽃을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말에 담긴 함의(含意)는 신학을 단지 사색과 심미(審美)와 관상(觀賞)을 위한 학문적 유희(遊戱)로 생각해서도 다루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을 사회적 실천을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오직 ‘교회적 실천’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내재적(內在的)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신학자로서 칼 바르트(Karl Barth)는 그의 저서 교회교의학[教會教義學, *Kirchliche Dogmatik* (I)]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신학을 하는 자는 기독교 교회가 자신에게 고유한 하나님에 대한 언설을 ‘들음’을 통해 학문적으로 자기 검증하는 것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쓰면, 신학을 하는 자(목회자로 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물론 신학자이지만 모든 설교(언설)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신학자는 개인으로서 멋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전통과 성경에 근거해서 이에 임하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학하는 자 또는 목회자 언설(설교)의 출처는 바로 ‘들음’이라는 사실을 바로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
느니라”(롬 10:17)

필자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출처’는 언설(설교)과 마찬가지로 ‘들음’에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들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대 신앙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복음)을 참으로 듣는 것은 또한 보는 것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음’은 ‘복음전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자기의 말을 제멋대로 지껄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들음’이 없는 전파는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복음(말씀)전파가 없는 ‘들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필자가 굳이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음’의 저편에 있는 ‘말함’을 경계해 두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외람되나마 신학지망생(목회자지망생)들을 위한 충고로서 ‘들음’이 코스웍(Course Work) 기간 동안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생각하기에 앞서 보았던 일련의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통계지표는 모두가 ‘들음’[겸손(謙遜)]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말함’[교만(驕慢)]을 앞세워두었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의 ‘들음’을 외면하고, 가난한 자로부터의 외침을 나몰라하고, 악한 세상과의 선한 싸움에 등을 돌리기 일쑤이고, 오로지 자기의 언변과 지위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저 ‘말함’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에서 비롯된 마땅한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의 기간 동안 아니 넉넉잡아 10년의 기간 동안 이 모든 ‘들음’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칼 바르트가 목회자 또한 겸손한 ‘교회의 일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저변에는 어떠한 뜻이 새겨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보기에 언설(설교)은 ‘말함’이 아니라 ‘들음’인 것입니다. 모든 화근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보세요. 길을 잃은 양이 240만 명 이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기하급수적이 아닐 수 없게 44,887명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고 신실한 ‘들음’에 기초하지 않고, 오로지 제멋대로 지껄일 수 있는 ‘말함’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각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 대형교회의 신도 수는 만(萬)단위 우수리를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대략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당 평균 신도 수는 18만이 되는 셈이 됩니다. 소규모 국가의 군대 수에 비겨 둘만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나마 한 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회는 모두가 분란에 휩싸여 있거나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말함’에서 비롯된 ‘교만’을 앞세워두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필자 고향의 마을사람 수는 어림잡아 300명 내외입니다. 통계지표를 곧이곧대로 적용하자면 고향교회의 신도 수는 많아야 60명 정도일 것입니

다. 60명의 교회목사님과 18만의 교회목사님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들음’과 ‘말함’의 시각에서 말입니다. 곧 ‘주변의 생활’(말함)은 누가 더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8만의 교회목사님이겠지요. 그렇다면 ‘들음의 생활’(들음)은 누가 더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거들먹거리기 치사스럽고 외람되기 그지없는 비유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을 듯합니다. 필자의 어머니는 80평생을 뒤돌아 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를 빼고 새벽제단, 삼일예배, 금요철야예배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그간 주일예배를 범하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필자가 태어나기 이전이라면 또 모를 일이지만 지금까지 50년을 넘게 곁에서 지켜본 결과 그 처지가 다르지 않다면 정히 믿을 수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들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글이 통계를 우선시 해두고 있는 까닭에 이도 심심풀이 땅콩 식으로 한 예배를 1시간으로 치고 계산해 보았더니 무려 17,600시간, 733일, 2년을 꼬박 교회에만 계셨다는 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 생애를 통해 수백 번 성경완독(들음)의 시간은 뒷전에 두고라도 말입니다. 이 세월 앞에 무슨 언설(설교)로 ‘말함’에 임하고자 계획하고 계십니까? ‘7년’으로요? ‘목사’라고 하는 지위로요? ‘학위증’으로요? ‘4가지 교과과정’으로요? 그도 저도 아니면 무엇으로 임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필자가 생각할 때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사명을 바로보아, 목회자를 누구보다도 끈찍이 사랑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것’ 외에는 달리 말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곧 ‘들음’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을 위한

신학을 경계하라”고 했던 슬라이에르마허의, ‘들음’을 통한 목회자의 자기검증을 요구했던 칼 바르트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필자는 앞에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교회적 실천’, ‘교회의 일원’, ‘교회의 전통’, ‘복음전도’, ‘목회자의 사명’, ‘성서에 기초한 영성’, ‘성령의 역사’ 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저변에, 이를테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제단을 하나 두어야 한다면 그 이름을 어떻게 새겨 두시겠습니까? 필자의 생각대로라면 주저 없이 ‘들음단’[청단(聽壇)]이라고 칭해 두겠습니다.

부디 ‘들음’의 제단에서 목회자 자신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들음’에 임해 주십시오. 불길 속에 처참히도 타오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들음’에 임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들음’에 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행여 놓칠 새라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울곧게 ‘들음’에 임해 주십시오. 모름지기 언변(설교)은 ‘말함’이 아니라 ‘들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바로 새겨 주십시오. 우리들 또한 또 다시 사도바울의 말씀을 ‘들음’으로서 이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소위 담임목사님 또한 부목사님의 ‘믿음’(들음)을 들어주세요. 명색이 부목사님도 목사님인데 하물며 직위를 ‘담임목사의 비서실장’이라고 폄하하여 발아래 두면 되겠습니까?[고백하기에 이 글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단어(호칭)에서 비롯되었음을 참고합니다]. ‘비서실장’이라고요? 너무나도 차갑고 무서운 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다가, 신학대학원을 넘어, 신학자의 말을 건너, 통계에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곳에 있든지 ‘말함’보다 ‘들음’을 앞세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말할 것도 없겠지요.

부디 옳은 것은 옳게, 그른 것은 그르게 취사(取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취사의 대상에 ‘들음’은 해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음’은 ‘믿음’이고, ‘말씀’(언설)이기 때문입니다.